

우리 건축문화재 다시보기

Re-thinking about Korean Building Treasures

건축은 시대적 문화의 총화이기에 어느 문명국이건 역사문화의 계승이란 차원에서 건축문화재를 어떻게 보존 계승하고 현대에 접목 발전시키는 가는 바로 국가적인 자존심이며 다른 국가, 다른 민족과 차별화하여 존재의미(정체성)를 찾는 대상이 되었다. 우리는 오천년의 민족문화를 자긍심으로 삼아왔고 오늘의 대한민국은 가깝게는 대한제국에 그 뿌리가 있음을 천명해 왔다. 이런 거창한 대의명분에서 뿐만 아니라 불타는 남대문(송례문)을 혹은 통곡하며, 혹은 아린 가슴으로 바라보던 우리 국민들의 정서에도 건축문화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인식케 한 실증이 아니겠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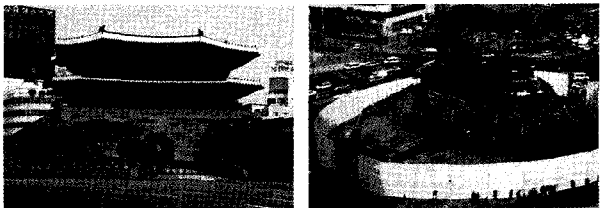
지난 2009년 한 해는 건축문화재에 대한 논의가 대단히 활발했던 한 해였고, 아직도 정리해야 할 많은 문제들이 있기에, 새해를 맞아 우리의 건축문화재 중 많은 생각을 하게한 대상물을 중심으로 3회에 걸쳐 본인의 개인 소견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우리의 건축문화재는 고려 이후의 것이 겨우 남아있고, 그나마 소위 개화기로 불리는 조선말에서 대한제국을 거쳐 일제강점기에 이르는 역사의 질곡(桎梏)기에 우리 전통건축은 질식되고 말아, 우리보다 다소 먼저 서양문화를 수용한 일본인들에 의해 이 땅에도 일본적 번안(倣案)형태의 서양식 건물과 일본식 건축이 난무하였으며, 우리의 건축은 도시의 주택에 그것도 상업적 이유로 오랜 건축적 품위를 핑계한 모습으로 명맥을 유지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6.25동란은 전국을 피

폐하게 하였고, 실용적인 이유로 소위 신식 문화주택 등 국적불명의 주거문화가 판치게 되었고, 고도(古都) 서울이 콘크리트 덩어리인 아파트의 난립으로 숨막히게 되고 말았다.

그나마 최근에는 숨차게 모방해온 서양건축의 밑물은 건축사들의 노력으로 다소 정리 되는가 싶더니, 이제는 서울의 한 복판에도 온통 유리화 철로 뒤덮인 물개성의 대형건물들이 판치는 곳이 되어 역사문화도시 서울을 찾는 외국인들을 당황하게 만들고 있다. 다행히 우리의 역사문화에 대한 국민적 갈망이 북촌 한옥마을을 보존하게 하였고, 가구 하나 변변히 남지 않은 궁궐들도 일본인들에 의해 강제 철거된 지 한 세기가 지난 요즈음 껍데기나마 복원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한국인의 끈기를 새삼 기대하게 한다.

부디 이 땅의 건축사들이 우리 역사문화를 모른다가 아니라 우리의 전통문화를 현대의 건축에서 빛나게 계승 발전시키기를 손 모아 기다려 본다.



(그림 1) 불타기 전의 남대문과 화재로 전소된 후의 남대문 모습 (필자촬영)



(그림 2) 100년전 서울과 현재의 서울 모습 (사진출처: 국립문화재연구소 송례문복원자료집, 서울학연구소)

목 차

1. 우리의 건축문화재, 어떻게 보아야 하나
Think about how we see our Building Treasures
2. 원구단과 조선호텔
The Won-Gu-Dan and the Cho-sun Hotel
3. 한옥 문화재_한규설 대감댁, 독락당 그리고 한옥마을
Conservation of the Traditional Houses, compared with some samples

필자 : 홍대형, 현 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by Hong, Dae-hyung

홍대형 교수는 서울대학교 건축공학과에서 공부했고, 안일도시건축, 범아건축 등 건축사사무소에서 근무하였으며, 1972년부터 전북대학교에서 교수생활을 시작하였다. 그 후 1979년부터 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부에서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으며, 80년대 초에 미국 M.I.T에 1년간 Visiting Scholar로 체류하며 미국의 건축교육현장을 두루 경험하였다.
현재 대한건축학회 참여이사 외에 한국건축역사학회, 국토도시계획학회, 건축교육사실학회, 그리고 한국건축가협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 「한국의 건축문화재 1 서울편, 도서울판 가문당」이 있다.



1. 우리의 건축문화재, 어떻게 보아야 하나

- Think about how we see our Building Treasures -

건축문화재를 어떻게 볼 것인가

2008년 2월 11일 저녁에 남대문이 불타는 참담한 모습을 현장 생중계로 전 국민이 지켜본 어이없는 일을 겪었다. 그리고 이어진 많은 국민들의 탄식소리가 마스크를 통해 우리에게 전해졌다. 그런 가운데 말도 안 되는 말들이 쏟아지는 현실을 보며, 이제 조금은 이성적이고 지적인 생각과 이해를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글을 쓴다.

우리의 문화재는 크게 구분해 보면 무형문화재와 유형문화재가 있다. 유형문화재는 대부분 도자기나 서화, 공예품, 조각 등 개인 소장품 혹은 박물관 소장품들로 전국의 박물관을 찾아가야 볼 수 있다. 그러나 같은 유형문화재에 속해 있으면서도 건축문화재는 유형문화재 중 우리들이 가장 쉽게 전국 각지에서 접할 수 있는 건축물이 대부분이며, 그 외에도 탑, 비석 등 석조물도 산재해 있다.

특히 건축문화재는 예술품으로 인식되는 박물관 전시품과는 다르게 본래 바라보고 감상하는 대상이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 조상들이 살아가고, 용도에 맞게 쓰기위해 만들어진 것들이기에 더욱 애착이 가고 조상들의 멋을 느낄 수 있는 소중한 보물인 것이다.

그러나 잠시만 생각해 보면 이렇게 쓰기 위해 만들어진 집은 오랫동안 쓰다보면 비도 새고, 썩기도 하고 벌레먹기도 해서 조금씩 또는 크게 고치고 손질하며 수백 년 세월을 간직해 우리 앞에 지금의 모습으로 이 땅 위에서 있는 것이다.

건축문화재는 목조 전통건축물(한옥)이 그 주류를 이루고, 개화기와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근대건축물이 주요 대상이다.

목조문화재는 한국 건축사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 땅의 험난한 역사 속에서 우리가 직접 접할 수 있는 대상은 많이 거슬러 올라가야 몇 안 되는 고려 때 사찰건물이 고작인 것은 이미 잘 알려진 바이며, 현재까지 알려진 것으로는 봉정사 극락전이 제일 나이 먹은 것이고, 부석사 무량수전과 수덕사 대웅전 등이 있다.

이 가운데 건축물로 으뜸인 것으로 나는 수덕사 대웅전을 들고 싶다. 건물의 당당함이 그렇고, 가구 짜임새의 정교함이 그러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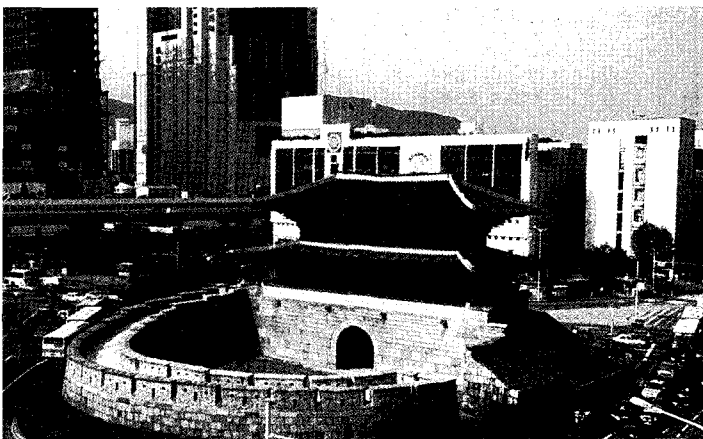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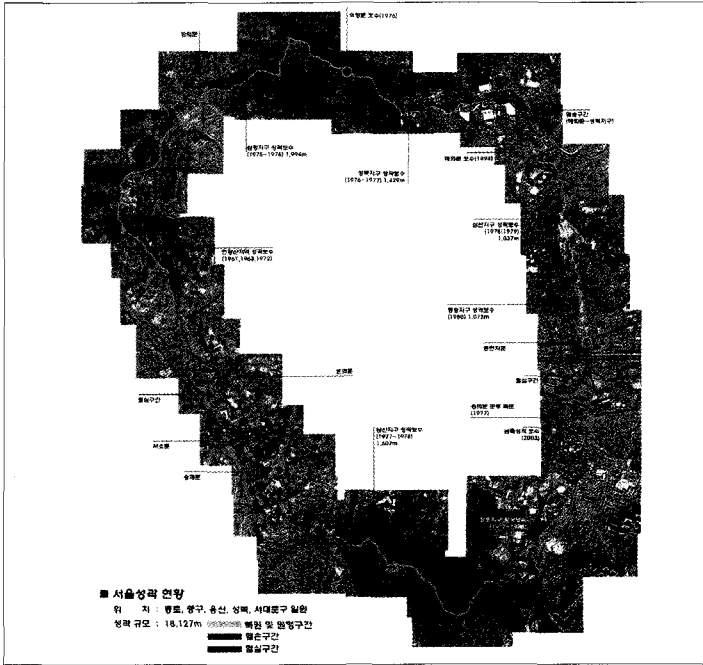
삼국시대부터 이 땅의 대승불교의 맥을 지켜온 역사가 그러하며, 고난의 시기인 개화기와 일제강점기에 민족의 지도자였던 큰스님들의 도량이자 본격적인 비구니 스님들의 선 도량으로 많은 여성 지도자를 키운 공로 또한 커다란 족적이기에 현대 한국 불교의 긍지가 서려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이곳이 그리도 중요한 곳인 것을 근간에 속 좁은 승려들에 의해 소박했던 사찰 경내의 구성을 초라하게 생각했는지, 일주문 안쪽에 대대적인 공사를 벌려 산비탈을 파헤쳐 연못을 만들고(결국엔 다시 메우는 공사로 마무리 되었다.), 콘크리트로 법당보다 커 보이는 누각을 세웠으며, 법당 앞에 있었던 옛 건물을 헐어내고 넓은 마당을 조성하였다. 이에 따라 루밀 통로를 지나면 높다란 화강석 수직 벽이 숲통을 꽉 막고 서 있어 어찌다 먼 길 찾아온 방문객은 돌벽 앞에서 멈춰서서 크게 한숨 내쉬고서 다시 가파른 계단을 숨차게 올라서야 비로소 법당이 눈에 들어오고, 법당 앞에는 새로 조성한 삼국시대 석탑을 모방한 탑이 섰는데 그 상부의 황금빛 보개가 휘황하니 오히려 눈이 당황하게 되고, 고즈넉하고 아담했던 절의 중심마당은 앞섰을 풀어헤친 듯 저 멀리 산 밑 동리까지 한 눈에 들어오게 만들어 한국 전통사찰의 특징적인 공간구성을 느낄 수 없게 만들고 말았다. 만공스님이 다시 이곳을 들르신다면 기뻐하실까? 또한 조선시대의 건축물도 임진왜란으로 전국이 초토화되는 고난을 겪고 다시 지어진 것이 대부분이기에 조선의 전반기, 다시 말해 임란 이전의 것은 손으로 꼽을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고 대부분의 목조문화재는 임란 이후의 건물이다. 여기에 결정적인 타격은 조선의 역사와 문화의 맥을 말살한 일제의 만행으로, 19세기 말 까지 거의 온전히 남아있던 서울의 5대 궁궐과 한양의 성곽과 도성문이 일부만 남기고는 대부분 강제로 철거 되었으니 아쉽기 짝이 없다.

여기에서 대한민국 건국 2년 만에 겪은 6.25의 참담함은 그나마 남아있던 많은 전통 목조문화재를 파괴해 버렸고, 궁궐 전각 안에 많았을 가구와 집기들은 아주 극소수의 것만 남아 남아있는 궁궐 전각들도 대부분이 껍데기뿐이니 오백년 왕궁(황궁)의 흔적은 짐작하기도 어렵게 되었다. 어디 그 뿐인가, 장안의 크고 작은 사대부들의 제택도 비교적 온전한 모습을 보여주는 예는 서울의 경우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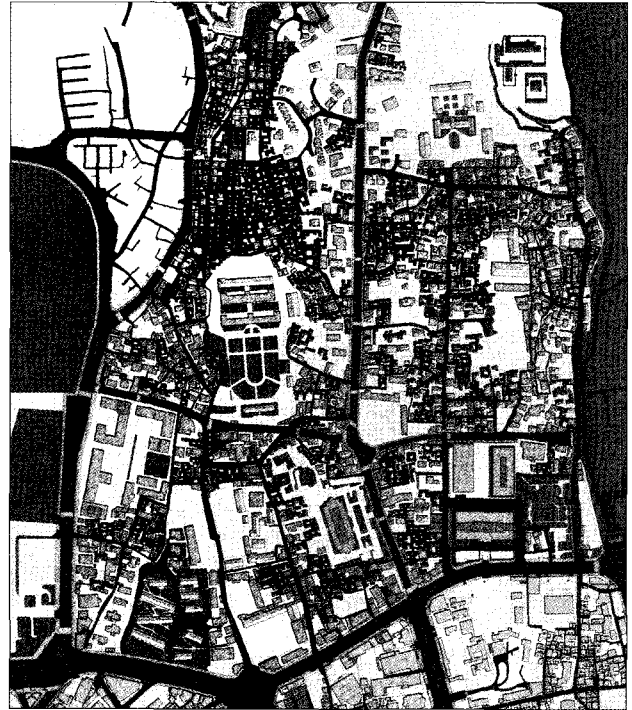


(그림 3) 90년대 초반과 오늘의 수덕사 모습 (필자촬영)





(그림 4) 서울성곽 현황과 동대문 전경



(그림 5) 북촌 현황 배치와 모습 (자료출처 : 2001년 북촌가꾸기 기본계획, 필자촬영)

릉 골짜기로 옮겨 국민대학교에서 관리하고 있는 한규설대감택이 거의 유일하고, 그 외의 대부분은 결국 경제 원리로 인하여 대부분 철거되거나 변형되어 옮겨지고 소위 신식건물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틈바귀에서 북촌 한옥이 주민들의 주도에 서울시가 적극 협조하여 걸모습만이라도 살아남은 것은 얼마나 다행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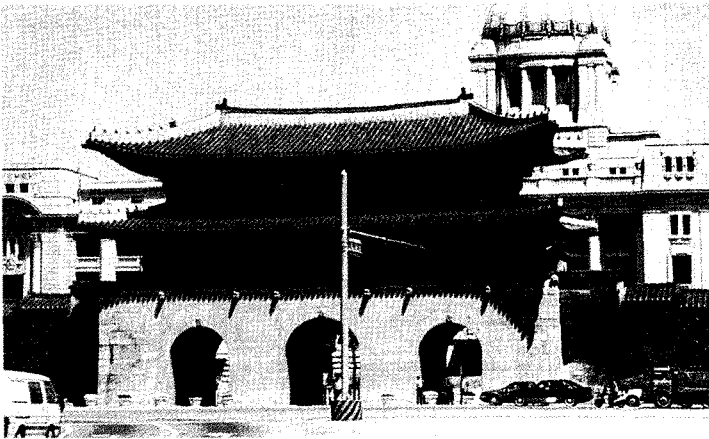
그렇다면 역사적 혼란기인 개화기부터 일제 식민시대의 유물 중 문화재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는 근대건축문화재의 사정은 어떠한가.

우리가 보통 근대건축문화재라 부르는 대상은 실은 건조물문화재 중 편의상 부르는 분류다. 다시 말하자면 이들 또한 궁궐이나 불탄 승례문처럼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로 다루어지는 건축물 중에서 건립연대가 19세기 말부터 역사적 문화적 자주성을 잃어버린 시기의 건축문화유산 중 문화재로 지정되어 보호받는 건축물, 즉 개화기에서 일제시기에 지어지고 그 기법이 우리의 전통적인 목조건축물이 아닌 것을 지칭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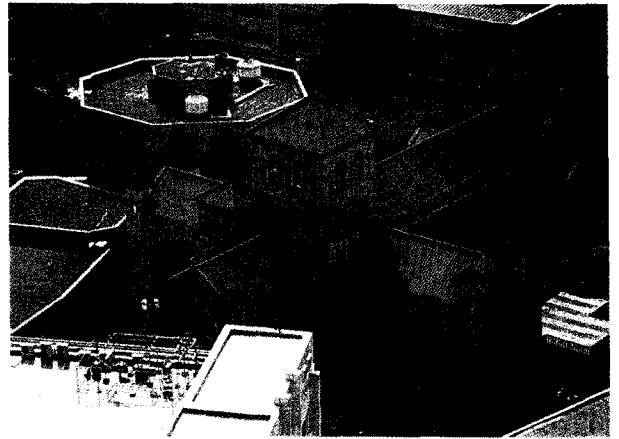
이들 대부분은 우리보다 조금 앞서 서양문물을 받아들인 일본인들이 주도하여 지어진 신식 관공서 혹은 상업건물이거나, 일본인들 보다 조금 먼저 이 땅에 들어와 그 영향권을 넓혀가던 선교사들에 의해 건립된 종교건물들이 주요 대상이다. 이들은 우리의 현대

건축 도입기에 결정적 영향을 끼쳤기에 건축문화를 이야기 하자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의 기본적인 건축구조는 서양식에 바탕을 두고 있으나 일본인들을 거치며 일본 열도 안에 세워진 건축물들과 유사하지만 왜소하게 변형된 모습으로, 서양건축문화의 본 고장인 유럽 대도시에서 볼 수 있는 웅장하고 화려한 건물들과는 비교할 수 없이 초라하고 빈약한 것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근대건축문화재를 국가차원의 보물이라 한다면 고개를 가우뚱하게 한다.

너무나 빈약한 모습이 많이 보이기 때문이다. 이는 서양의 주요 건축물, 그리스의 파르테논신전이나 로마의 베드로대성당 등은 모두 당대 최고의 예술가와 기술자가 총 동원된 그야말로 다이아몬드를 손으로 공들여 깎듯이 돌과 벽돌과 나무 등 건물 재료를 다듬고 거기에 최고의 미술가와 조각가의 솜씨가 보태어져 만들어낸 결과이기 때문이다. 그런 것에 비할 바 못되지만 굳이 이 땅의 근대 건축물 중 제일의 꼽으려면 어쩔 수 없이 이미 훔쳐버린 구 총독부 건물이 생각난다. 그러나 그 건물은 조선 제일의 궁궐을 훼손하며 서있었으니 언감생심 살려 남겨둘 수 없었고, 건물 자체도 철거과정에서 알려진 바로는 빈약한 콘크리트 뼈대 등 별로 대단할 것도



〈그림 6〉 경회문 뒤쪽의 조선총독부 건물과 성공회성당 모습



없는 건물이었음을 보여주었다.

그 다음은 명동성당, 구 서울역사, 구 한국은행본관, 구 제일은행 본점 쪽 될 것이다. 이들과 비슷한 반열에 들 만한 다른 건물로는 너무나 많이 훼손된 신세계백화점 구관과 광통관, 아예 통째로 다른 곳으로 옮겨 앉은 구 벨기에영사관 등을 꼽을 수 있겠다.

또한 궁궐 안에 있어 비교적 온전히 보존된 덕수궁 내의 석조전과 서별관, 지금은 덕수궁 담 밖에 떨어져 골목 속에 숨어있는 중명전이 원래 있었던 주위의 적지 않은 전각들—만회당, 흙문당, 장기당, 양복당과 경효당, 수풍당과 정이당, 그리고 강태실, 환벽정 등—이 있었던 구역이었으나 일제 때 모두 헐리고 중명전 혼자만 남아 국치의 현상이었던 역사성마저 잊은 채 한 때는 사유화되어 온통 망가진 것이 근래에 다시 서울시가 사들여 외투리로 남겨졌다. 또 이들 중 비교적 좋은 석조건물로 성공회성당이 있다. 이 성당은 유럽인들의 충실한 기록 보존의 혜택으로 건립 초 일부만 지어져 사용되었던 것을 처음 설계도에 의해 충실히 완성된 예로, 유럽인에 의한 설계가 일본인들이 설계한 다른 건물과는 역시 그 격이 다를 을 느끼게 한다. 그리고 또 요즈음 많은 구설에 오르내리는 서울시청사가 있다.

일제가 당시 경성부 건물로 한성의 한 복판, 덕수궁 코앞에 지은 이 건물은 많은 서울시민들이 돌로 된 석조건물로 오해하고 있는 콘크리트 업무용 건물이다. 아울러 이 건물은 헐린 구 총독부 건물과 함께 무식한 신문기자들이 아무렇게나 붙여준 서양의 무슨 무슨식 건물과는 동떨어진 그냥 그 당시 신식 관청건물일 뿐으로 당시 식민 통치의 기념물 같은 건물이어서 입이 쓴 건물이다. 그러나 이들 개 화기와 일제강점기의 건물들은 우리 현대건축의 시발점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으니 한국건축사의 중요한 보물로 지켜져 후손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건축문화재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대부분의 근대건축문화재들은 현실적인 이해와 맞물릴 때 어이없이 문화재로서의 지위를 포기하거나 말살되는 일이 너무나 자주 일어난다. 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하지는 논의가 진행될 때 기습적으로 헐어버린 옛 국도극장 건물이 좋은 예로 기억된다. 그래도 다소 긍정적인 경우는 명동의 옛 국립극장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된 일이다. 이 건물은 그 내부가 이미 완전히 훼손되었지만 이 땅이 암울했던 일제 때 지식인들과 예술가들의 마음의 고향이었던 장소이고 건물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건축문화재의 가치와 의미는 단순히 건축물로서의 가치와, 이와는 다른 역사적 문화사적인 의미와 가치가 있기 때문에 보다 소중한 우리의 자긍심의 뿌리가 되는 것이다.

승례문은 태조 5년인 1396년에 만든 것이 2년 뒤 크게 고쳤고, 세종 30년인 1448년에 다시 고쳐지는 것이 그간의 숱한 전란을 겪으며 버터오다가 한국병합 초기에 총독부에 의해 서울성곽이 철거되면서 도로 속의 섬처럼 남게 되었다. 화재로 훼손되기 직전의 승례문은 1961년부터 1963년에 걸쳐 완전히 해체하며 정밀실측 도면을 작성하고 많은 부분 새 자재로 보충되어 원래의 모습대로 복원된 것이었다.

다시 말하자면, 승례문은 조선 초에 건립된 목조건축물이 지금까지 그대로 보존되어왔기 때문에 국보로 된 것이 아니라 그동안 쉽 없이 손질 되었지만 조선 초의 우리 전통건축문화의 모습을 지켜왔기에 한국전통건축을 대표하는 건축물로 전 국민이 사랑하는 국보 1호의 자리를 누려왔던 것이다. 이는 “이조 백자가 깨어진 것을 접착제로 붙여놓아도 국보냐”는 식의 망발을 하는 것은 건축물의 특성을 너무나 모르는 소치일 뿐 아니라 전 국민을 선동의 대상으로 바람 잡는 언론의 횡포일 뿐이라 할 수 있겠다.

다시 곰곰이 생각해 보자. 과연 우리들이 우리의 전통건축물을 정말 아끼고 사랑한 적이 있었는가. 서울시내에 즐비하던 한옥들이 이제 거의 자취를 감추었고, 문화재로 지정하여 보호할 만하다는 판정을 받은 적지 않은 건물들이 경제논리로 하루 밤 사이에 몽게져 버린 일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 백제의 옛 도읍지로 지목받고 있는 풍납토성 안의 땅을 몽땅 민간에 팔아먹은 일, 버젓이 한양 도성 안의 5대 궁궐 중 하나인 경희궁 터 안에 서울시립사 박물관을 짓고 궁궐 정문은 엉뚱한 곳에 복원해 놓아 우리의 건축 문화에 관심있는 외국인 건축학자라도 올 때면 나도 함께 죄인 된 심정으로 민망하기 짝이 없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문화재를 다루어 온 모습인 것이다.

더욱이 조선이 건국되어 새 도읍지로 한양을 정해 종묘와 궁궐을 짓고 성곽을 둘러 5백년 도읍으로 성곽도시 한성이 만들어지면서 세워진 4대문과 4소문 중 으뜸으로 도성의 얼굴이었던 승례문이 활활 타올랐다.

앞으로 우리는 우리의 건축문화재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